

공원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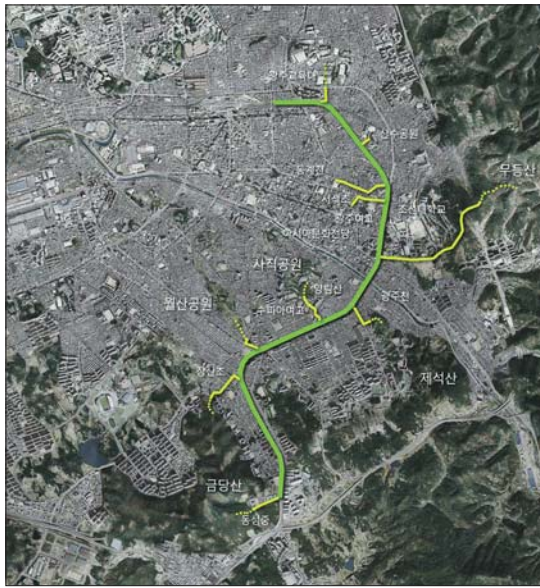
푸른길 공원

도심 7.9km 폐철도 녹지 조성 '시민 품으로'

그동안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공원은 일정한 면적을 정해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해 사람들이 노니는 한정된 공간이었다. 그 수혜자는 주변 주민이나 그 공원을 찾는 사람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세계 유례가 없는 선 모양의 '푸른길 공원'은 이러한 공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시대 변천에 따라 불필요해진 철도를 도심의 공원으로 꾸민다고 이 공원의 혜택은 전체 시민에게 미쳤다. 푸른길 공원의 조성 개요와 탐방기를 5차례에 걸쳐 실는다.

1 세계 유례 없는 도심 선형 공원

1930년 설치된 광주~여수선은 근대도시 광주의 성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반시설이었다. 당시 광주의 도심이 지금의 동구 일대와 남구·서구 일부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광주역에서 출발해 남광주역, 효천역을 지나 전남으로 나가는 이 광역선은 외곽 도시철도였던 셈이다. 하지만 광주는 그 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어느새 녹슨 철로는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해 민원의 대상이 돼 버렸다. 교통 소통을 방해했고, 주변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렸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도시 구조 개선을 저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위성에서 본 푸른길 공원.

결국 1990년 이 철로의 이전이 결정된 뒤 지난 2000년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 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도심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부지를 상업시설로 분양하는 방안, 경전철을 설치해 도심 교통을 소화하는 방안,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녹

중 구간(1200m), 2008년 백운광장 구간(1200m), 2009년 광주역~조선대(2880m)이 순차적으로 시민의 품에 안겼다.

푸른길공원은 ▲시민의 적극적·지속적인 참여 ▲도심 내 녹지공간의 중요성 인식 ▲기업체 기탁·시민헌수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 교수, 시의회 등이 참여한 푸른길 공원 자원위원회와 푸른길운동본부도 조직됐다.

지난 2002년 초 구성된 푸른 광주 가꾸기 시민운동본부는 화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추진위원 29명,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 153명이 참여했으며 이 단체가 주도해 2005년부터 푸른길가꾸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운동에는 일반시민,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해 4억 5000만원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기증자 이름이 붙은 나무, 벤치, 정원, 물탑 등을 공원 내에 설치했다. 또 조선대~남광주 4거리 구간(535m)을 지역 업체인 남광건설에서 조성해 기탁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도 잇따랐다.

공공기관이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과 기업,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모두 자금과 전문지식, 행정서비스를 결합해 푸른길 공원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기존의 도시공간 내 산업시설이 재생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돌려졌다는 점, 그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해 시민참여를 통해 좋은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라고 극찬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푸른길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참여는 큰 역할을 했다. 어린이부터 기업,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공원에 나무를 심고 벤치 등 시설을 설치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시민·행정기관·기업 등 참여

갈등 딛고 끌어낸 도심 공원

11만㎡에 나무 31만주 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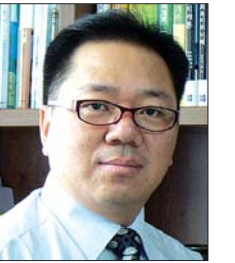
지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들 방안 모두 어느 정도의 논리를 갖춰 논쟁을 갈수록 치열했다. 하지만 녹지가 부족한 광주의 구도심을 고려하고, 또 미래세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광주시, 철도청 등 행정기관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실 도심 내 철로를 녹지로 조성한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설득이 받아들여졌다"고 회고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에는 모두 2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총연장 7.9km, 면적 11만3172㎡에 느티나무 등 46종 31만2000주, 공원 시설물 45종 등이 설치돼 있다. 지난달까지 옛 남광주역 주변 0.3km만 남겨둔 상태로, 2004년 조선대 정문~남광주 사거리 구간(535m)부터 시작해 2006년 광주전변~백운광장 구간(1760m), 2007년 백운동 동성

도시제안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취약지역의 경기침체는 계속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의 해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의 현안을 행정,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 등이 아닌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해 설립, 운영되는 기업형 사업체를 의미한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최소한의 수입을 추구하는 기업형 사업체가 공급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자립도를 높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김용민

198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이 방식은 일본 등에서 커뮤니티 복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그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영국은 약 5

기업형 사업체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만5000개, 일본은 약 8000개가 설립돼 있으며 시장규모는 각각 약 50조원, 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점주인들의 협력으로 재래시장을 재생한 (주)아모르도사와 사례, 고령자와 풍부한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성화해 나뭇잎을 요리장식으로 가공·판매하는 (주)이로도리 사례 등이, 영국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주민들의 취업 지원사업을 펼치는 리부트(ReBoot)사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재택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더랜드 홈케어협회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된 녹색실버가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고 힘을 모아야 한다.

지자체는 핵심 의제, 즉 어젠다를 채택하고, 중간조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우선 설립해야 한다.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자원 조사 및 DB화, 콘텐츠 발굴, 예비 사업자와 매니저 양성, 경영컨설팅, 교류와 협력사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기획과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며, 지역기업은 지역사회 공헌활동 차원에서 1사 1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고, 퇴직 경영인 및 기술인력 등을 제공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믿음, 참여, 네트워크를 뜻한다. 지금은 사회적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대이다.

<숭원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수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팔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社團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 作名·鑑定 專門 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기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

since 1985. CH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전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강좌

광주18기 11월 26일(금) 14:00-17:00
광주19기 11월 27일(토)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어침/한방기초 등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 중의계(5년) 졸업증과 중국침구사, 중의사, 추나사 자격취득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총동회 창립(2010.5.29) CH중국문화원 전문과정 졸업자분들은 연락바랍니다.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1544-5359
광주분원: 062)236-3516

日式專門 韓成 한성

新裝開業案内

30년을 이어온 - 日式 韓成會館 이 11월 23일 새로운 모습으로 최신식내부 확장수리하여 임직원 모두가 더욱더 정성과 친절 봉사로 고객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0년 11월 일
한성회관 대표 한상 열 拜上
예 | 약 | 문 | 의
062-224-2841~2 · 010-4922-2842